

# “치열”

## 1 정세

<전체정세>- 대경총련 7.8월 사업계획서 참조

<여성정세>- 월별로 자료 제출

## 2 5.6월 평가

새로운 기운으로 싱그럽고 힘찬 그리고 분주했던 3.4월 시기를 보내고 5.6월이 되어 대학은 안정된 모습을 갖추어 갔지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인식하고 효순이 미선이 1주기, 6.15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반미반전, 민족자주를 중심으로 두고 민족의 자주통일로 다 바쳐 치열하게 살아갈 것 결심을 드높이고 각 대학에서 성과를 내으며 투쟁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대학에서 일관되게 반성폭력 운동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과 투쟁에서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모임을 안착화 하는 과정에서 반성폭력 운동과 학칙제정투쟁을 학우들 사이에 공론화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반성폭력 모임'이 시작되면서 대학일꾼들의 이 투쟁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성민중들과 함께 투쟁을 일구었던 5.6월이었습니다. 38대회를 준비했던 대구경북지역의 각계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여성사안을 중심에 두고 투쟁을 일구었습니다. 영남대의 경우 학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채워야할 부족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5.6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했고, 세웠던 대학에서는 꼼꼼한 집행대책을 내어오고 사업계획을 관철시켜내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업과 투쟁은 일상적이고 꾸준히 진행되지 못하고 대중사업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박한 정세가 놓여져 투쟁의 요구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쟁에 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꾼들이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단위의 투쟁계획을 세우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놓여진 투쟁에만 쫓아가기 바빴지 자기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내어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학 단위 전반 조직생활이 불안정했습니다. 조직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다보니 정세토론과 학습이 거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직 사상운동에 대한 일꾼들의 고민이 높지 못하고 계획이 세워지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을 극복합시다! 7.8월 각오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대학별 방중계획을 반드시 내어와야 합니다. 대중사업과 투쟁계획만이 아니라 조직사상운동에 대한 고민을 높이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꼼꼼한 집행대책도 내어옵니다.

둘째, 일꾼들 사이에서 정세토론을 활성화하여 매시기 정세를 각인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 내어야 합니다.

셋째,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조직생활, 학습생활을 안정되게 진행해야 합니다.

## 3 7.8월 주요과제

1. 민족공조를 제일로 내세워 반미반전에 총력을 기울여 투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2. 호주제 폐지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여성민중과의 투쟁과 연대사업을 펼쳐내는 때입니다.
4. 소모임과 과외학생부를 꾸준히 총여학생회 둘레로 묶어내고 방중활동을 견인해야 합니다.
5. 일꾼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을 높여내고 조직사상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합니다.
6.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를 계획해야 합니다.

## 4 7.8월 대중사업 및 대중투쟁과제

### 1. 반미반전 총력투쟁, 6.15공동선언 이행 투쟁

한미일 삼각구도의 틀이 단단하게 짜여지면서 한반도 전쟁분위기는 우려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반미반전, 민족공조를 가슴에 새기고 투쟁의 파고를 높여내어야 합니다.

1> 반미반전투쟁과 공동선언 이행 투쟁에 대한 작은 실천과제라 하더라도 여학 단위 자체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정세토론을 진행합니다.

#### 2> 구체적 방안

- 반미반전 총력투쟁 / 8.15성사를 위한 조국통일운동 집중기 (대경총련 7.8사업계획서 참조)
-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촉구 서명운동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있음을 합의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자는 내용으로 의식화해나가는 주요 방안입니다.

- 7.27 정전협정 50돌 반전평화 범국민 선언운동

6.13대회 준비위원 5만명모집의 성과를 이어서 반전평화 범국민 선언운동으로 모아내고 선언자들의 계 의·조직화 함으로써 투쟁의 동력을 마련합니다.

- 유인물 배포운동
- 여성통일선봉대 (7.31-8.15)
- 대구경북 여성 통일 캠페인 (7월 말경) (추후계획제출)
- 3회 여성통일한마당

#### 3> 흐름

대경총련 반미반전 총력투쟁 결의대회 (7.12)

7.27 반전평화 대회 (정전협정 체결일)

8.15 민족공동행사  
대구 유니버시아드

## 2. 호주제 폐지 투쟁

상반기 내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단순히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잔존하는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적 문화들을 바꾸어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 사회적으로 공분이 모아지고 있는 지금 호주제 폐지 투쟁에 박차를 가합니다.

- 1>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호주제 폐지 1만인 남성 선언운동
- 2> 사이버상의 호주제 폐지 운동
  - 호주제 폐지 메일 보내기
  - 호주제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
- 3> 호주제 폐지 캠페인 (지역 여연과 논의 이후 구체적 계획 제출)

## 3. 여성민중생존권 투쟁과 연대사업

노동자, 농민... 어느 계급 계층을 막론하고 반미를 제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미 없이는 생존도 없고 반미 투쟁만이 민중생존권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을 한 단계 상승시켜 반미총력투쟁으로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여성민중들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청년학생이 앞장에서 여성노동자, 여성농민들과 6.15공동선언을 틀어쥐고 반미반전, 6.15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 1> 여름 농촌활동
- 2> 기지촌활동
- 3> 대구경북 여성 통일캠페인
- 4> 호주제 폐지 캠페인

## 4. 학우들과의 소통

방중이라 학우들과 직접 만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사이버상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우들과의 소통공간을 마련합니다.

- 1> 반미반전, 호주제 폐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우들과 소통합니다.
  - 반미반전 대중의식화 과제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주범이 미국임을 알려낸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민족공조를 통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의 중요성을 알려낸다.
- 7.27 반전평화대회를 잘 알려낸다.
- 한미일 의세공조,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알려낸다.
  - 호주제 폐지
- 2> 방도
  - 메일링 작업, 온라인 소식지, 학교 홈페이지 활용
  - 소식지나 신문발송
  - 학교에 나오는 학우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 5 조직사상운동

## 1. 33일행동

### 1>제안

상반기 내내 조직사상운동에 대한 고민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변변한 계획을 세워내지도 못했습니다. 일꾼들 개인은 학습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고 조직생활이 안정적으로 되지 못해 총여학생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고민들을 모아내어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사업과 투쟁이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고 대중사업에 치중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조직사상운동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새시대, 새학생운동... 조직강화, 운동발전을 위해 상반기 내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여학생운동 또한 조직과 운동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혁신! 혁신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는 지금 예전처럼 살아가다간 예전보다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중시기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반기 사업과 투쟁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상반기 어떻게 살았던가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세우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투쟁을 만들어갈 일꾼들을 단련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보다 조직생활도, 학습도, 실천도 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학생운동의 조직강화, 운동발전을 위해서 조직사상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사각과 북잡다단해지는 정세는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에서 주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방학이라고해서 안일하게 지내다간 계속 요구되는 일정에만 쫓아다니다라는 방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성과를 내어오지도 못하고 하반기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부지게 결심합니다.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7.8월 <33일 행동>을 치열하게 해내지 못하면 하반기 우리조직, 우리민족의 운명은 없다라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살아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투쟁!!!

2>기간 : 7.14~8.15

3>33일 행동지침

- 매일 조직생활

내용 : 매일 메일을 총화하고 점검하며 다음날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아비판, 상호비판이 조직생활 공간에서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헤이 해질 수 있는 일꾼들을 단련시키고 이후의 사업과 투쟁의 성과를 내어 올 수 있습니다.

일꾼총화진행, 자비상비 / 단위 하루평가 / 정세토론

형식 : 매일 조,총례 / 주총화대회 / 매주1번 전체여학일꾼 조,총례

- 매일 1시간 학습

- 매일 실천-수침운동

## 2. 여름나기! 소모임, 과여학생부

### 1> 소모임

방중이지만 활동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활동성원들의 연락망 구축
- 방중 활동 계획 마련
- 00소모임 모꼬지 계획

2> 과여성생부

- 연락망, 메일링을 구축하여 꾸준히 연락합니다.
- 하반기 여학 수련회에 조직합니다.

3. 조직생활 강화

대학별 현황에 맞게 조직생활 계획을 세웁니다.

4. 알아야 면장도 한다! 학습 제일주의!

- 1> 여성학과 역사, 철학 학습을 진행합니다.
- 2> 경제토론을 일상화 합니다.
- 3> 개별학습과 집단학습을 병행합니다

- 개별학습

방중 개인의 학습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리고 전여대협에서 제안하는 책임기 운동에 동참합니다.

- 집단학습

일주일 한번 경제토론 / 일주일 한번 여성학 학습

- 4> 무조건! 하루 1시간 반드시! 학습합니다.

5. 실천! 또 실천!

- 1> 수첩운동!

- 일꾼들은 수첩을 항상 지니면서 각자의 실천과제를 정리하고 실천여부를 총화합니다.
- 학우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진행합니다.

- 2> 매일 실천활동을 진행합니다.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실천활동에 대한 교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천활동에 대한 총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6. 대경여대협 일꾼 수련회 (구체적 계획 추후 제출)

- 1> 내용 : 상반기, 방중평가(33일 행동 평가) 와 하반기 계획 토론편
- 2> 일시-8월 18, 19일 / 장소-미정

## 6 흐름 및 주요사업

1. 1시기 : 준비기 (7.13까지)

〈33일행동 도움단계〉

농활 후속사업 - 평가진행하고 여농주체 연락망을 구축해서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방중 사업과 투쟁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별 방중사업계획수립

대경총련 반미반전 총력투쟁 결의대회 (7.12)

2. 2시기 : 반미총력투쟁기 (7.14~7.27) / 7.27 반미반전평화대회

〈33일행동 구르기〉

9회 경북여성농민한마당 (7.24)

대구경북 여성 통일캠페인 (7월말경)

전여대협 여름강좌 및 수련회 / 한총련 집행일꾼 수련회

3. 3시기 : 8.15성사를 위한 조국통일운동 집중기 (7.28~8.15) / 8.15 민족공동행사

〈33일행동 넘기〉

대경총련 일꾼 수련회 (7.28~29)

여성통일선봉대활동

여성 통일캠페인

지역 통일한마당

8.15 민족공동행사

4. 4시기 : 방중투쟁 총화기 및 하반기 투쟁 준비기

〈33일행동 착지〉

대경여대협 일꾼 수련회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8월 축전 (8.19 혹은 20)

대구 유니버시아드 (8.21~8.31)